

제4차 한·중 해양 협력 포럼 개최인사

(2017. 12. 4.)

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이서항

오늘 2017년도 한-중 해양협력포럼을 중국 남해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특히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 해양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남도(海南島)에서 열리고 한국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다로 둘러싸인 장소에서 두 나라간 해양협력 회의를 개최하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협력논의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은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 결과도 어느 때 보다 더 건설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돌이켜보면, 우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중국의 남해연구원이 4년 전 양국의 해양협력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된 이 포럼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. 두 나라 전문가들에게 해양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이해하고 비록 다름이 있다고 해도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은 이 포럼의 두드러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. 특히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소개된 '다름이 존재하더라도 같음을 추구할 수 있다'라는 뜻의 구동존이(求同存異)의 교훈은 양국 해양문제 연구 전문가·학자들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도 새겨들을 만한 경귀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이해 바탕 위에서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해양을 갈등과 대립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안정의 바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이번 해남도에서 개최되는 네 번째 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회의에 임하고자 합니다.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해양안보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양경계 및 자원관리는 물론 심해저 및 북극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·교환되기를 기원합니다. 심해저 및 북극문제는 한·중 두 나라가 특별한 공통의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최근 동북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은 북한의 잇달은 핵실험 및 미사일

도발로 인하여 전에 없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. 이에 따라 각 관련국의 정책도 포용성·신축성 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경직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럴수록 우리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할 일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각국의 해양 및 안보관련 정책이 대립과 배척보다는 포용과 융합을 지향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.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4차 한·중 해양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거의 1,000여년 전 중국 송나라 시대에 당시 현인들은 ‘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바다는 더욱 커진다’ (海納百川 有容乃大)라고 갈파했습니다. 우리가 바다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다가 본래 뜻하는 바처럼 우리 한국과 중국, 그리고 더 넓게 아시아가 포용과 융합을 향해 전진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지혜를 모아 봅시다. 감사합니다.